

## 故 具然昌 교수를 追慕하며

哀痛하다는 말로 어찌 兄이 他界하신 슬픔을 표현하였다 하리오. 人命은 在天이라고 하지만, 不意의 病魔와의 鬪病 끝에 가족들의 정성어린 看病의 보람도 없이 忽然히 幽明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兄과 어울려 일하고 함께 學問을 논하며 情談을 나누던 우리의 悲痛한 마음을 形言할 길이 없군요. 평소에 것처럼 명랑한 성품과 端雅한 모습을 이제는 다시 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兄은 그 뛰어난 學問의 慧眼으로 일찌기 環境法의 필요를 일깨우고 그 開拓者의 努力을 다하셨을 뿐 아니라, 後學의 지도에 남다른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慶熙大學校 法科大學長의 重任을 맡고 계시던 때에는 건강을 염려하는 주위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아니한채 당시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오로지 所任을 다하기 위하여 東奔西走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하군요. 1970년대의 後半에 兄을 비롯하여 徐元宇교수, 金南辰교수, 梁承斗교수, 李均成교수 및 金東正변호사 등과 韓國環境法學會의 創立을 의논하고 同學會를 발족시킨 것이 바로 엇그제의 일 같은데, 우리가 幽明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이 무슨 變故입니까?

그러나, 兄이 가신 이제, 兄이 그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오신 우리의 環境法과 環境法學會는 兄의 陰德에 힘입어 무럭무럭 성장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都下의 紙上에 環境問題의 심각성이 자주 오르 내리고 있는 요사이 불현듯 兄의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구려.

사람으로 태어나 어차피 한번은 떠나야 하는 길이라면 부디 평안히 가시고, 天上의 안온함을 누리십시오. 삼가 冥福을 빌 따름입니다.

1991년 4월

李 尚 圭 再拜